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91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5.07~2026.05.13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9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4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예비후부, 미래, 청년, 생활, 핵심
경제·관광	항공(여행/관광객/노선), 소비, 마을, 기반, 브랜드
지역·사회	업체, 경기, 기반, 대응, 차량

※ 분석 기간 : 26.05.07.~26.05.13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예비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당 김명호 후보의 전격 불출마 선언 및 선거 구도 재편 -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김성범-고기철 2파전 격돌 - 도의원 예비후보들의 생활 밀착형 지역 맞춤 공약 발표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미래 성장을 위한 공공기금 펀드 출자 조례 추진 - AI·디지털 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 인재 육성 기반 조성 - 제주 1차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유입 및 농업 혁신을 위한 '청년 창업농 사관학교' 도입 - 아라동 '루트330' 중심의 청년·기술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 청년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교통 및 주차 공약 -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한 생활형 복지 거점 강화 및 확대 - 46년 된 낡은 공공기관 냉방 규정 등 생활 불편 제도 개선 약속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곤 후보의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의 실현 가능성 논란 - 서귀포 미래 재도약을 위한 후보별 6대 핵심 공약 발표 및 대결 -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 국비 확보 성과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항공(여행/관광객/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인천 직항 노선 10년 만의 재개 및 시범 운항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선 유류할증료 사상 최고치 경신 - 저비용항공사(LCC)의 노선 감편 및 무급휴직 등 비상경영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인공지능(AI) 활용 수준 전국 최하위 및 보안 우려 - 고물가 및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자 심리 급격한 위축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 및 지역화폐 소비 연계 성과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형 로컬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 여행' 운영 본격화 - 공동체 중심의 돌봄 가치 공유 '돌봄이음주간' 개최 및 확산 - 농촌 마을 인력난 해소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활동 전개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산업 AI 대전환을 위한 '바이오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 R&D 예산 확보 - 미래 에너지 신산업 전문 인력 양성 플랫폼 '에너지기술공유대학'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삼다수 중국 징둥닷컴 입점 및 글로벌 브랜드 도약 - 제주감협 공동브랜드 '굴림원' 하우스감귤 첫 출하 - 제주 명품 한우 브랜드 '보들결' 서울 특별 기획전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사용자 책임 규명 위한 원청 교섭 투쟁 선포 - 학교 태양광 시설 사업 특정 업체 독점 의혹 규명 촉구 - 제주산 특산물 제조 업체의 원재료 허위 표시 적발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제60회 제주도민체전 개최 및 대규모 스포츠 행사 안전 관리 - 국산 키워 신제품 '감황'의 재배 환경 분석 및 생산성 제고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제2공항 건설 관련 갈등 및 추진 논의 - 스마트 기술 기반 자치 치안 고도화 및 도민 중심 인프라 확충 -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확대를 통한 지역 돌봄 기반 강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이변 대비 여름철 축산 재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 방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상특보 구역 세분화 및 명칭 변경 - 대규모 복합 재난 상황 가정한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대응 점검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특별 예방 활동 추진 - 화물차 과적 운행 처벌 대상 확대 및 실질 위반 화주 단속 강화 - 도난 차량 운행 미등록 외국인 검거 및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 활용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5월 7일~5월 13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1,155건임
 - 정치·행정 분야 628건, 경제·관광 167건, 지역·사회 360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위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예비후부, 미래, 청년, 생활, 핵심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예비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당 김명호 후보의 전격 불출마 선언 및 선거 구도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본 후보 등록을 앞두고 전략적 결단에 따른 불출마를 전격 선언함. 도지사 선거보다 도의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보 정당의 의석 확보와 국민의힘 견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함. 이로 인해 제주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힘 문성유, 무소속 양윤녕 후보 간의 3파전 구도로 압축되며 선거 판세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 김 예비후보의 사퇴는 진보 진영의 표 분산 가능성을 낮추어 더불어민주당
-------	------	--

정치·행정	예비후부	<p>위성곤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세를 형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그는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노동자, 농민, 청년 등 소외된 목소리가 제주 정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진보당 도의원 후보 7명의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할 뜻을 밝힘. 또한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와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 해결 등 핵심 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함.</p> <p>-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김성범-고기철 2파전 격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확정됨. 민주당 김성범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움.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 역시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멈춰 선 서귀포를 다시 뛰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세 확산에 주력함. · 양 후보는 서귀포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두고 고 후보 측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짐. 김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와 농수산 물류 혁신 프로젝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고 후보는 제2공항 조속 추진과 연계한 서귀포 미래발전 특별법 제정 및 한국마사회 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서귀포의 주력 산업인 농어업과 관광업의 위기 극복 방안이 주요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p>- 도의원 예비후보들의 생활 밀착형 지역 맞춤형 공약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각 선거구별 예비후보들이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함. 국민의힘 강하영 후보는 파크골프 수요 급증에 대응한 생활권 중심 체육 인프라 확충을, 무소속 강상수 후보는 지역 간 연대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 및 원도심 활성화를 약속함.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후보는 보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귀포보건소의 이전을 제안하며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함. · 이도2동갑 김기환 후보는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및 온마을 돌봄체계 강화를 공약하며 젊은 세대의 표심을 공략함. 아라동읍의 양영수 후보는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 복지인 마을택시 제도 도입을, 정현철 후보는 아라동읍 청년과 대학이 상생하는 스타트업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함. 각 후보들은 정당의 논리를 넘어 지역구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
	미래	<p>- 제주 미래 성장을 위한 공공기금 펀드 출자 조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한권 예비후보는 제주의 지역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금에서 출자가 가능한 '공공기금의 펀드 출자 조례'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함. 이는 국가 차원의 지역성장펀드 운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자금 모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제주 지역 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를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임.

정치·행정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조례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과 연계되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원도심형 지역상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과 온오프라인 연계 수출 플랫폼 마련 등 미래 지향적인 경제 정책들을 함께 제시함. 공공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둠. - AI·디지털 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 인재 육성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북동 강성의 예비후보는 미래 사회의 핵심 경쟁력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AI 및 디지털 교육 확대를 공약함. 청소년들에게는 코딩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에게는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적응 교육을 지원하는 포용적 교육 구상임. 제주대학교 글로벌대학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주의 국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교육감 예비후보들 또한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제주 교육의 대전환을 약속함. 송문석 후보는 제주형 미래교실 혁신을 위해 질문하고 탐구하는 힘을 키우는 '제주형 IB 2.0' 초등 전면 도입을 제안함. 김광수 후보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춘 학교 체제 개편과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며 뒤처지는 아이 없는 학력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힘. - 제주 1차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구조적 위기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제주의 부리 산업인 농어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물섬 제주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함.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 및 항공 물류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 스마트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함. 제주가 가진 풍부한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과 가공, 관광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포부임. · 농업 현장에서도 AI 기술을 접목한 농업수급 예보 시스템 도입 등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농업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 이경철 예비후보는 매년 되풀이되는 특정 월동채소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교한 생산 예측 및 예방 시스템 마련을 약속함. 이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제주의 농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려는 중대 정책임.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유입 및 농업 혁신을 위한 '청년 창업농 사관학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제주의 청년 유입을 확대하고 농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교육부터 창업까지 지원하는 '제주 청년 창업농 사관학교' 도입을 공약함. 단순한 교육이나 보조금 지원의 한계를 넘어 실제 창업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창업 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함. 유희농지와 고령농 승계 농지를 활용해 청년 전용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고 전

정치·행정	청년	<p>문가의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실패 없는 창업을 돕는 정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관학교를 통해 육성된 청년들에게는 농지 임대, 스마트팜 시설 구축비 지원, 창업 자금 및 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창업 패키지'가 체계적으로 제공됨. 문 후보는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청년 농업 소득 보전제'를 연계 적용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기술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이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전략으로 평가받음. <p>- 아라동 '루트330' 중심의 청년·기술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는 아라동을 기업과 청년,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제주 스타트업 1번지'로 만들겠다는 미래 지향적 청사진을 발표함. 제주 대학교와 첨단과학기술단지, JDC의 창업 지원 공간인 '루트330'이 한데 모여 있는 지역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유기적인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상임. 청년들이 고향인 제주를 떠나지 않고도 첨단 기술 창업에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풍부한 업무 인프라와 우수 인재를 직접 연결하는 정책임. ·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청년 스타트업과 첨단기업 간의 협업 프로그램 확대, 기업 연계형 테스트베드 지원, 개방형 업무 및 교류 공간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정 후보는 창업 공간과 기업 현장, 대학 연구 인력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아라동을 제주를 대표하는 청년·기술 기반 혁신 거점으로 기능하게 하겠다는 포부임. 이를 통해 제주에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둠. <p>- 청년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함.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일정한 근로소득 기준과 가구 소득 중위 5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임. · 이 사업은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혜택임.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꾸준한 근로 활동과 자립 역량 교육 이수 등 성실한 참여가 필요하며,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함. 청년들이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청년 정책 중 하나임.
	생활	<p>- 도민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교통 및 주차 공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예비후보들은 고질적인 주차난과 교통 체증 등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핵심적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쏟아냄. 양경호 후보는 비어 있는 시간대의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을 활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제주형 주차공유 모델'을 제안했고, 김기환 후보는 주민 수익형

정치·행정	생활	<p>공유주차 시스템과 스마트 쉼터형 버스정류장 확대를 공약함. 이는 큰 예산 없이도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호출형 '마을택시' 제도 도입을 약속한 진보당 양영수 후보는 영평·월평 지역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움. 고민수 후보는 노형오거리의 극심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신호 체계의 전면 재조정과 우회도로 조기 개통을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하루 10분의 시간적 여유를 되돌려주겠다고 강조함. 이처럼 후보들은 거대 담론보다 도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생활 정치 실현에 집중함. <p>-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한 생활형 복지 거점 강화 및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의 가파른 고령화에 대응하여 경로당을 단순한 쉼터 기능을 넘어 의료, 건강 관리,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형 복지 거점'으로 진화시키는 공약들이 잇따름. 김기환 후보는 노후된 경로당의 쾌적한 리모델링과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등 복지 기능 확대를 약속했으며, 박호형 후보는 경로당을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현장 상담 창구로 활용해 병원 동행과 생활 돌봄 서비스를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즉각 연결하겠다고 밝힘. ·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김성범 후보는 경로당을 건강 관리, 식사, 운동, 치매 예방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마을 돌봄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모든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 배치를 약속함. 또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지역과 읍·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임. 이러한 정책들은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정든 마을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고립 없이 존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 <p>- 46년 된 낡은 공공기관 냉방 규정 등 생활 불편 제도 개선 약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기후 위기로 인한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된 제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46년 전의 낡은 공공기관 실내 온도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약속함. 현재 규정된 평균 28도 이상의 제한이 실제 근무 환경에 적절하지 않아 다수의 공직자와 이용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온 낡은 제도를 찾아내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임. · 위 후보는 이와 함께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형 기후보험' 도입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 대상 복지 서비스 강화 등 기후 안전망 구축 공약도 구체적으로 마련함. 단순히 거창한 공약을 내세우기보다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작지만 실무적인 불편함들을 발굴하고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임. 이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삶을 실제로 더 나아지게 만드는 책임감 있는 생활 정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핵심	<p>- 위성곤 후보의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의 실현 가능성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한 100조 원 규모의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사업이 이번 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며 후보 간 치열한 정책 검증이 이어짐. 이 공약은 10GW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 단지를

정치·행정	핵심	<p>조성하고 HVDC 송전망을 통해 육지의 반도체 산단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여, 그 수익 중 연간 최소 1조 원 이상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임. 이에 대해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막대한 투자 자금 조달 구조와 도민 부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공세를 펼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 후보는 민간 투자 여부와 국비·지방비의 부담 비율, 실패 시 책임 소재 등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함. 또한 진보당 김명호 후보 역시 AI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 등과 관련하여 실제 운영권과 수익이 외부 대기업에 독점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민 보호 방안을 요구함. 위 후보의 핵심 공약이 실제 도민 주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조인지에 대한 정밀한 검증과 합리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p>- 서귀포 미래 재도약을 위한 후보별 6대 핵심 공약 발표 및 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의 여야 후보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귀포를 다시 뛰게 할 핵심 공약들을 발표하며 정면 승부에 나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제2공항 조속 추진과 연계한 '서귀포 미래발전 특별법' 제정, 항공정비(MRO) 및 드론 산업 육성, 한국마사회 기능 이전, 항공특성화 대학 설립 등 서귀포의 체질을 바꾸는 6대 핵심 공약을 제시함.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중앙정부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강조함. ·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는 서귀포의 고질적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대 핵심 과제'와 서귀포항을 농수산 물류의 스마트 거점으로 만드는 물류 혁신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내세움. 서귀포의료원의 전문 인력 확보와 응급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임. 두 후보 모두 서귀포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 국책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밀착형 핵심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표심을 공략하고 있음. <p>-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 국비 확보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 상당한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지역의 숙원 사업과 핵심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음. 문대림 의원은 하천 범람 예방을 위한 인도교 설치 및 제방 보강, 이호동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조성, 상습 침수 구역 배수로 정비 등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을 확보함. 김한규 의원 또한 결빙 도로 자동제설장치 설치와 행원지구 가뭄 대비 농업용 저수조 정비 등 도민의 안전과 영농 활동에 직결된 사업 예산을 마련함. · 서귀포시 역시 재난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삼성여고-칼호텔 간 도로 개설과 대정읍 도시계획도로 배수 시설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투입할 계획임. 이러한 핵심 사업 예산 확보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음.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긴밀히 협력하여 확보한 국비는 제주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생활 환경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관광</p>	<p style="text-align: center;">항공(여 행/관 광객/ 노선)</p>	<p>제주 노선 일반석 정상 운임이 15만 원 안팎까지 오르고 할인 항공권마저 10만 원에 육박하면서 도민의 이동권 제약과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 여파로 인해 5월 초 징검다리 연휴에도 불구하고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8% 감소하는 등 관광 시장 수요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유가 상승분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여름 휴가철까지 여행 심리 위축이 현실화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제주도는 개별 관광객 대상 탐나는전 지급 및 공공 플랫폼 할인 쿠폰 제공 등 31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여 관광 시장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함. <p>- 저비용항공사(LCC)의 노선 감편 및 무급휴직 등 비상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유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제주항공, 진에어 등 국내 LCC들이 동남아와 괌 등 중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최근 두 달 사이 왕복 약 900편 안팎의 국제선 감편을 실시하며 수익성 방어를 위한 노선 효율화 전략에 착수한 상태임. 특히 제주항공은 국제선 일부 노선을 조정해 왕복 180여 편을 줄였으며, 운항 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유류비 부담이 적은 일본과 대만 노선 위주로 기단을 재편하는 등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긴축 경영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 · 경영 환경 악화에 따라 제주항공은 객실 승무원 대상 6월 한 달간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진에어는 승무원 입사 예정자의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하고 안전격려금 지급을 늦추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고강도 조치를 병행함. 올해 국내선 하계 스케줄 운항 편수와 공급 좌석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상황에서 고유가에 따른 항공사들의 비상경영은 결국 공급 축소와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제주 관광 산업 전반에 걸친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소비</p>	<p>- 제주지역 인공지능(AI) 활용 수준 전국 최하위 및 보안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비자원의 권역별 분석 결과, 제주지역 소비자의 AI 서비스 활용률은 21.1%로 전국 평균인 32.3%를 크게 밑돌며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고, 생성형 AI 상품 구매 경험률 또한 63.2%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활용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높은 AI 인지도(84.2%)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역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AI 리터러시 확대를 통한 활용 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제주 소비자들은 AI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86.8%로 전국 평균(80.9%)보다 5.9%포인트 높게 나타나 AI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반면 디지털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하거나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역량 점수는 68.7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거점 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교육 등 제주도의 정보 보호 인식 제고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결과로 해석됨. <p>- 고물가 및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자 심리 급격한 위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제주 실물 경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파동과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전월 대비 8.7포인트 하락한 94.5를 기록하는 등 지역 내 소비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임. 특히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지수가 9.5% 감소하는 등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항공료와 여객선 운임 인상까지 겹치면서 도민들의 생활 물가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임.

	<p style="text-align: center;">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제주본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와 맞물려 도내 관광 및 서비스 업종의 매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고유가 부담과 공급석 감소가 지속될 경우 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큼. 비록 제주도의 추경 예산 집행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투입이 일부 완충 역할을 하겠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지출 억제 기조는 당분간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엄중한 경제 시국임.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 및 지역화폐 소비 연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고유가 충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피해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대상자 4만 4,849명 중 4만 1,671명에게 246억 원을 집행해 92.9%라는 전국 2위 수준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함. 이번 1차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등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여 급격한 에너지 및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 · 특히 지원금 수령 방식 중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이용 비중이 58.8%에 달해 전국 평균(25.6%)의 두 배를 웃도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지급액 중 약 81억 9,000만 원이 실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함. 제주은행과 비즈플레이는 탐나는전 이용 활성화를 위해 3,500만 원 규모의 경품 이벤트를 운영하며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피해지원금 신청을 개시할 예정임.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관광</p>	<p style="text-align: center;">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형 로컬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 여행' 운영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단순 관광에서 벗어나 마을에 머물며 생활문화와 자연 자원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체류형 로컬관광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올해 지정된 10개소의 전담 여행사와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시작함. 잇지제주의 '워크인선힐'과 픽제주의 '런투조천'이 대표 사례로, 여행자가 마을 안에서 일하고 달리며 지역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워크인선힐'은 워크ेशन 수요층을 대상으로 마을 유휴 공간을 업무 공간으로 전환한 '노마드 패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22개 이상의 로컬 파트너 업체와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통해 마을 상권 소비를 직접적으로 유도함. '런투조천'은 마을 해설사와 함께 달리며 만세운동 역사 이야기를 체험하는 스포츠형 콘텐츠로 참가자 전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로컬관광 생태계 조성과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견인 중임. - 공동체 중심의 돌봄 가치 공유 '돌봄이음주간' 개최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웃과 마을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내 8개소 공간에서 '돌봄이음주간' 행사를 개최함. 이번 행사는 고립을 넘어선 공동체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가와 함께 참여 팀들의 사업 성과 발표를 진행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돌봄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자립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둬. · 주간 동안 우리 집 베란다 텃밭 만들기, 아동·청소년 숲 체험, 이주민과 함께 하는 제주의 맛 체험 등 마을 단위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주민들이

	<p>마을</p>	<p>일상 속에서 돌봄 서비스를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 16개 공동체를 발굴 및 지원하며 도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중심의 촘촘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확장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p> <p>- 농촌 마을 인력난 해소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활동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마늘 수확철을 맞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마을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 농협, 군부대 등이 참여하는 연인원 4,500명 규모의 영농 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고령농과 여성농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현장 대응 활동에 착수함. 특히 베트남 난민성 출신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을 환영하고 한림농협 등을 통해 농가에 배치함으로써 단기간 집중되는 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농작업 적응을 위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 한경농협은 농촌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홈치학교' 프로그램을 개강하여 주말 동안 컴퓨터 교육, 역사 탐방, 플로깅 등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어린 자녀를 둔 조합원들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줌. 또한 농협 제주본부와 농가주부모임은 남원읍 위미리 일대에 계절화 2,000본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는 등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 활동을 통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마을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함.
<p>경제·관광</p>	<p>기반</p>	<p>- 바이오 산업 AI 대전환을 위한 '바이오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테크노파크는 12개 민간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바이오 특화 데이터센터'를 조성하여 제주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반의 AI 대전환(AI) 인프라 구축에 본격 돌입함. 이 센터는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산업 모델을 확산시키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 기업들이 AI 자원을 활용해 바이오 소재 연구 및 제품 개발 공정을 디지털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상용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를 통해 제주 지역 바이오 기업들은 기존의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미래 바이오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함. 이번 파트너십 구축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제주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p>-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 R&D 예산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R&D) 사업' 공모에서 도내 21개 중소기업 과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년간 총 26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 성장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함. 이는 전년도 확보 예산 대비 약 2.6배 증가한 수치로, 지역 R&D 예산 삭감이라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도 공격적인 국비 확보 전략과 체계적인 과제 관리를 통해 반등에 성공하며 도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입증함. · 이번 사업은 주력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기업 역량 강화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며, 도내 기업들이 연구개발 기회를 대거 확보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에 기

경제·관광	기반	<p>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확보된 재원은 기업의 실질적인 기술 성장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제주테크노파크의 밀착 지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p> <p>- 미래 에너지 신산업 전문 인력 양성 플랫폼 '에너지기술공유대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 에너지기술공유대학(ETU)'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향후 6년간 총 139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 등 제주가 중점 추진하는 미래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함. 제주대학교가 주관하여 경남 지역 대학 및 에너지 혁신 기관과 협력하는 이 플랫폼은 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와 기업 공동 연구, 현장 실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570명 규모의 대규모 인재 양성 체계를 가동할 계획임. · 특히 지필로스, 제주에너지공사,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실제 에너지 선도 기업들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습득하도록 돕고, 협력 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청년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 이번 사업 선정은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인재 양성과 청년 고용 창출로 연결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2035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핵심적 인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브랜드	<p>- 제주삼다수 중국 징동닷컴 입점 및 글로벌 브랜드 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중국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징동닷컴에 오는 7월까지 입점 완료 및 '제주삼다수 전용 브랜드관' 개설을 추진하며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를 위한 수출 계약을 체결함. 그간 한인 시장 중심이던 수출 유통망을 온라인 채널로 확장하여 중국 현지 소비자를 직접 공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으며, 우수한 품질을 앞세워 거대 소비 시장에서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임. · 공사는 유통사 GS글로벌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온라인 시장 내 판매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지난해 개항한 제주~칭다오 직항 노선의 컨테이너선을 물류에 활용하여 운송 효율 및 공급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임. 나아가 제주삼다수를 매개로 제주도를 알리는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및 문화 교류를 병행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오는 2035년까지 수출 10만 톤 달성을 적극 추진함. <p>- 제주감협 공동브랜드 '굴림원' 하우스감귤 첫 출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감귤농협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조합원 과원에서 올해산 하우스감귤의 첫 수확을 전개하고 본격적인 산지 출하를 개시하며 5년 연속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유통 시동을 걸었음. 수확된 감귤은 농협 유통센터의 비파괴선별시스템을 통해 당도 11브릭스 이상의 고당도와 외관 등 일정 기준을 엄격히 충족한 고품질 물량만을 선별하여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 등에 약 2톤 규모로 납품되는 구조임. · 이번에 출하되는 고품질 감귤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시설에서 선별되어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사용자 책임 규명 위한 원청 교섭 투쟁 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선포함. 원청 기업이 하청 구조를 핑계로 이윤을 독식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끊어내고 노동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질적 사용자 책임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하청 노조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동계는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함.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지체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원청의 실질적 교섭 참여를 쟁취하기 위해 도청 앞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지역 내 노동계의 공동 대응 수위를 높임. - 학교 태양광 시설 사업 특정 업체 독점 의혹 규명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최근 3년간 전체 관급자재 물량의 85% 이상을 독점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함.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며 교육청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폐쇄적인 구조와 심의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함. · 해당 업체의 경영진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선거 개입 정황이 보도되면서 교육계 내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목소리가 커짐. 전교조 제주지부 등은 우수 조달품 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지침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달 행정의 전면적 개편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함. - 제주산 특산주 제조 업체의 원재료 허위 표시 적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산 과일과 수돗물을 사용해 술을 빚은 뒤 제주산 꽃잎과 정제수로 만든 지역 특산주인 것처럼 속여 수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양조장 대표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됨. 피의자는 미국산 레몬과 필리핀산 파인애플 등 저가의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도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동백이나 유채 등이 포함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청정 제주 브랜드와 소비자의 신뢰를 기만함. · 해당 업체는 지난 4년 동안 약 26만 병의 가짜 특산주를 유통하여 8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치경찰은 첩보 입수 후 세밀한 장부 분석과 현장 점검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함. 자치경찰단은 제주 청정 이미지와 지역 특산주의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시 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적극 행정을 약속함. 현재 상점가 지정에 있어 문

지역·사회	경기	<p>턱이 높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로와 주차장 등 상업 활동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면적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합리적인 방안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점가 지정 확대는 소상공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골목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됨. 후보자들은 단순 기준 완화를 넘어 홍보와 마케팅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병행하여 지역 상권이 다시금 활기를 찾고 주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 <p>- 제60회 제주도민체전 개최 및 대규모 스포츠 행사 안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60회 도민체전 개막을 앞두고 많은 도민이 모이는 경기장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철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함. 특히 전국체전을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군중이 밀집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비상 상황 대응 역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림. · 소방당국은 경기장 내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지휘 체계와 인명 구조 절차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경기를 관람할 환경을 조성함. 첨단 드론 기술과 인명구조견 등을 활용한 실전 중심의 훈련을 통해 대형 스포츠 이벤트 개최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사회 전반의 안전 기반 시설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음. <p>- 국산 키위 신품종 '감황'의 재배 환경 분석 및 생산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키위 신품종인 '감황'의 불량률이 타 지역에 비해 제주에서 유독 높게 나타남에 따라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토질과 기온, 재배 간격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정밀 비교 분석에 나섬. 제주 지역 키위 생산량이 전국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기형 열매 발생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농업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임. · 연구 결과 품종 자체의 유전적 결함보다는 제주 특유의 기상 조건과 좁은 재배 간격이 수세 안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농가별 맞춤형 재배 관리 기술을 보급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함. 외국산 품종에 대한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국산 품종이 지역 환경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고품질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함.
	기반	<p>-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제2공항 건설 관련 갈등 및 추진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찬성 측은 현 제주공항의 포화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반면 반대 측은 환경 영향 평가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함. 최근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이후 정부의 회신 내용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주민 투표 실시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지역 사회 내에서 다시 심화되는 양상임. · 비상도민회의는 우도 인근의 대규모 조류 군집 서식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점을 들어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항공기 조류 충돌 등 안전성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함. 반면 추진위원회는 제2공항이 미래 항공 수요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쟁점화를 멈추고 정해진 법적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함.

지역·사회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기술 기반 자치 치안 고도화 및 도민 중심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치안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와 주요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함.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및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생활 밀착형 치안 인프라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 전반의 안전 지수와 도민 신뢰도를 높이는 가시적 성과를 거둠. · 2027년까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교통 혼잡도 알림과 산간 도로 결빙 예측 서비스 등 첨단 방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운영 모델을 정립함. 드론 관제 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 최신 기술 기반의 치안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미래 지향적인 경찰 조직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함. -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확대를 통한 지역 돌봄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신광초등학교에 주말 돌봄 센터인 ‘꿈낭’이 새로 문을 열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3개소씩 총 6개소의 거점 돌봄 체계가 완성되어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됨.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맞벌이 비율을 보이는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말에도 아동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보육 공간과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함. · 꿈낭은 요리 활동과 업사이클링 공예 등 아동 중심의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단계적인 거점 확대를 통해 읍면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돌봄 격차를 해소함.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내 유휴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지속 가능한 공적 돌봄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며 지역 사회 안전망을 확충함.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이변 대비 여름철 축산 재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이른 더위와 폭염 등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6년 여름철 축산 재해 대책’을 수립하고 농가별 사전 점검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함. 기상 특보 발령 시 신속하게 작동하는 상황실을 10월까지 운영하여 실시간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필수 물품을 보급하여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를 방지함.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냉난방 설비와 비상 발전기의 정비를 지원하고 가축 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 재난 발생 시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신속한 대응 능력이 농가 경영 안정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방재 활동을 펼침으로써 축산 산업 피해를 최소화함. - 방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상특보 구역 세분화 및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방기상청은 한라산의 영향으로 지형별 날씨 차이가 매우 큰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상특보 구역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고 행정시 중심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난 대응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대폭 높임. 특히 동부와 서부 지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위험 기상 정보를 보다 세밀하고 직관적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함.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개편은 2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폭염과 열대야 등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맞춤형 방재 정보를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임. 새롭게 신설된 열대야 주의보와 폭염 중대 경보 등 강화된 특보 기준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자체와 도민들이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력을 강화함. - 대규모 복합 재난 상황 가정하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대응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강진과 화재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 대규모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실전 대응 태세를 정밀하게 점검함. 소방을 포함한 27개 유관 기관에서 400여 명의 인력과 첨단 장비를 투입하여 붕괴 사고와 전 기차 화재 등 다양한 돌발 변수에 대한 실전적인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함. · 드론을 활용한 인명 수색과 헬기를 이용한 중증 환자 이송 등 입체적인 구조 작업을 통해 현장 지휘 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확인하여 대형 재난 발생 시 공백 없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훈련을 통해 발굴된 미비점은 향후 방재 대책에 즉각 반영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고도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제 재난 현장 적응력을 높임.
지역·사회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특별 예방 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자치경찰단은 봄 행락철과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5~6월을 교통사고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렌터카 업체와 협력해 초보 운전자 자격 확인 강화 및 도로 환경 안내 등 예방 활동에 집중함. 도내 전체 사고 중 렌터카 비중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무인 단속 장비 확충을 병행하여 실시함. · 공항 안내데스크에 교통 안전 안내문을 비치하고 QR코드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단속 장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안내 체계를 가동하여 관광객들이 낯선 도로 환경에서도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 좁은 도로와 급커브 등 제주 특유의 지형 특성에 따른 사고 위험을 대어 전 충분히 고지하고 차량 상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모음. - 화물차 과적 운행 처벌 대상 확대 및 실질 위반 화주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차 운전자가 화주의 지시나 관리하에 과적 운행을 할 경우 운전자가 아닌 실질적 위반 행위자인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요 도로와 항만 등에서 강력한 현장 단속을 개시함. 이는 운행 제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운전자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도로 시설 파괴 및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함임. · 축하중 10톤이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해 주요 거점 8개 지점에서 상시 및 이동식 단속을 펼치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경각심을 높임. 건설 및 화물 노동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화물 운송 시장의 투명성과 도로 안전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

지역·사회	차량	<p>- 도난 차량 운행 미등록 외국인 검거 및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서부경찰서는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의 감지 경보를 토대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1톤 트럭을 무면허 상태로 몰고 다니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 2명을 도로 위에서 추적 끝에 검거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함. 피의자들은 약 3주 전 제주시 내에서 차량을 절도한 뒤 면허 없이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거 당시 체류 기간이 모두 만료된 상태로 확인되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함. · 경찰은 시스템을 활용한 기민한 대응으로 도난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조기에 적발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나 사고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으며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차량 절도 경위와 불법 체류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함. 최근 도내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사 당국은 도심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첨단 감시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는 치안 활동임.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